

연구논문

인천 지역 초등학교 아동의 아동, 가정, 노인 관련변인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인식조사

A Study on the Perceptions Toward the Elderly of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Incheon
Area According to the Related Variables

인천대학교 생활자원관리학과
장 영 애

Major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Univ. of Incheon
Young Ae Jang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toward the elderl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Incheon area.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264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grade 2, 4, 6 and their mothers. Instruments included the inventory of the perceptions toward the elderly. The main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 The degree of children's perceptions toward the elderly differed according to children's sex, age, birth order, mother and father's education, income of the family, religion and the attitudes of parents toward the elderly. Also the degree of children's perceptions toward the elderly differed according to whether grand parents are alive or not, whether they live together in the same household or not, the age of grand parents,

their financial ability, health of grand parents.

Key words: perceptions toward the elderly,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cheon area

I. 서론

현대는 고도의 산업 사회로서 경제성장, 생활환경의 개선 및 의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의 사망률과 출생률의 감소는 연령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고, 이러한 급진적 변화는 사회 전체 인구의 노령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평균수명의 연장 과 노인인구의 증가는 우리나라 보다 구미 여러 나라에서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어 노인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 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는 1990년에는 5.1%, 1996년에는 6.1%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0년에는 7.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00). 유엔은 노령인구의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은 고령 사회, 20%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가 갈수록 빨라져 오는 2022년에는 노령인구가 전체의 14.3%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에,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가 급격히 노령화로 향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과거보다 부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즉, 사회의 급격한 발달은 노인의 지식이나 지혜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 노인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증가시키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 노인은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연장자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이 쌓

아온 지식과 오랜 경험은 젊은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노인들은 가장으로서, 경제권자로서, 손자녀 교육자로서 그 위치가 확고했다. 특히 손자녀 교육자로서 조부모는 손자녀와 밀도 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는 조부모나 손자녀 세대에게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계였다. 특히 조모는 손자녀들에게 모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것을 통해 조모에 대한 아동의 인식은 친밀하고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는 가족을 확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 시켰다. 조부모와 분거하는 부부중심의 핵가족은 세대간의 갈등을 피할수 있고 생활의 편리함을 준다는 이유로 선호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핵가족 내에서는 아동의 사회화과정에 조부모의 영향이 감소되어 가고 있으며, 심리적 유대를 가졌던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도 소원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내의 노인의 역할 감소와 상실 뿐만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은퇴, 그에 따른 경제활동과 수입의 약화 및 심리적 고독과 사회적 고립 등은 가족과 사회에서의 노인의 지위를 크게 하락시켰을 뿐 아니라 가족원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한편 노화는 모든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인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즉, 노인은 자주 아프고 정신적으로 느리고 잘 잊어버리며, 새로운 것을 잘 배우지 못하고 잔소리도 많고, 위축되어 있으며 비생산적이고 방어적이라고 여겨진다(신귀연, 1995). 이와같은 부정적 이미지는 아동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데 특히 Seefeldt(1977)등은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한 CATE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노인에 대한 아동들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고 고정관념적이며 아동들 대다수가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젊은 세대의 태도나 인식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연구결과는 서구의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초창기의 대부분의 연구들(조명희, 1974; 차용은, 1981; 윤진·조석미, 1982)은 주로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의 연구들(이은미, 1990; 신귀연, 1995; 김윤정, 정선아, 2001)은 노인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여 주기도 했으며, 노인에 대한 일반적 태도는 연구 대상의 성별, 연령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노인들과의 접촉의 정도 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져, 노인에 대한 태도가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선자, 1989; 박경란, 1994; 신귀연, 1995; 이미정, 1996; 김혜경, 1997).

한편, 가정은 아동이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밀도 있게 장시간의 접촉을 하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므로 가정의 여러 특성, 부모의 태도 등은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 및 노인에 관련되는 여러 특성변인들도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조사했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아동, 가정, 노인에 관련되는 변인으로 구분하고 이들 여러 변인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 아동관련 변인, 가정관련 변인, 노인관련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며 이들 변인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아동관련 변인으로는 아동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에 따라 노인

에 대한 인식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가정관련 변인으로는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월수입, 종교, 노인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따라, 그리고 노인관련 변인으로는 조부모 생존여부, 조부모 동거여부, 조부모 연령, 경제력, 건강상태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인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이들 변인의 노인인식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동기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러한 인식은 부모, 가정, 사회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동이 어떻게 노인을 인식하고 있고 어떤 변인들이 아동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아동과 노인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것이며, 미래의 노인문제 해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아동관련 변인(아동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가정관련 변인(아버지 학력, 어머니학력, 월수입, 종교, 노인에 대한 부모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노인관련 변인(조부모 생존여부, 조부모 동거여부, 조부모 연령, 경제력,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넷째, 아동의 노인인식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여러 다양한 변인과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본 장에서는 아동관련 변인, 가정관련 변인, 노인관련 변인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다룬 연구들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하겠다.

먼저 아동관련 변인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는 연령을 들 수 있는데 연령단계별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이선자(1989)는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노인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서도 아동기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 될 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고 한다. 이외의 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아동보다 청소년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명희, 1987; 신귀연, 1995; 이미정, 1996).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연령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로 Wineberger 와 Millham(1975)은 25세와 75세 집단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25세 집단과 비교하여 75세 집단은 노인은 삶에 만족감이 없고 긍정적으로 인성 특질을 받아 들이고 있지 않으며 의존심이 강하고 적응력이 약함을 지적했다. 이와 비슷하게 윤성혜(1990)도 청년, 중년, 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 비교에서 청년, 중년, 노년층간의 노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노인의 가족관계 영역을 제외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나타났는데 청년, 중년, 노년층 모두 노인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세 집단중 중년층이 가장 긍정적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Levkoff와 그의 동료들(1987)은 45세와 8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노인자신의 건강에 대해 중년층과 비교하여 그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육체적인 건강, 심리적인 우울, 성별, 교육 등과 같은 변인을 통제했을 때 노인층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중년층보다 더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한편 김윤정과 정선아(2002)는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 비해 긍정적 노인관과 부정적 노인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내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보고해 또 다른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고한 연구도 있는데 차용은(1980)은 남녀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는 조명희(1974), 신귀연(1995)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이와는 반대로 아동기와 청년기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노인에게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이선자, 1989; Hoffman, 1980)도 있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출생순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를 조사한 임인혜(1987)는 맏이인 청소년은 비맏이인 청소년에 비해 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출생순위가 한국 가정에서의 세대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남을 지적했다.

다음에는 가정에 관계되는 변인과 노인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먼저 부모의 직업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인식차이를 비교한 정영숙(1990)은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 기술직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노인에 대한 가족 중심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을 보고했다. 이러한 경향은 직업이 갖는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정이나 사회에서 확고한 역할을 수행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연장자에 대해 공경하는 태도를 갖게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윤성혜(1990)와 김광숙(1987)은 부모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김혜경(1997)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이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세대간의 차이에 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을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노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서동인(1989)은 손

자녀가 지각한 조모와 손자녀와의 접촉과 조모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에서 손자녀가 주도한 접촉과 조모가 주도한 접촉에 부모의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박의순(1990)의 연구에서도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따라 조부모와 대학생 손자녀간의 친밀도는 유의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손자녀는 조부모를 더욱 친밀하게 지각했다.

다음에는 노인에 관계되는 변인과 노인에 대한 태도, 인식과의 관계를 본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노인과의 동거 여부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중학생들은 노인의 경제생활, 사회생활 등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지만, 노인과 동거하는 학생들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김광숙(1987)의 연구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도, 경제문제 인식도, 건강문제 인식도, 노인의 가족관계, 노인의 심리문제, 노인문제 해결방안 인식도 등에서 모두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 노인과 동거하는 경우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차용은(1980)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과의 동거 유무별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했는데 노인의 보수적 경향, 관심과 취미생활, 가족관계, 현재와 미래에 대한 태도, 정신기능의 쇠퇴의 영역에서 노인과 살고 있는 경우가 노인과 살아본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서울시내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과의 동거 경험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임인혜(1987)의 연구에서는 노인과 동거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노인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이은미(1999)와 이미정(1996)의 연구에서는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과의 접촉경험도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갖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Ross, R.F. & Freitag, C., 1976 ; Porter, K. & O'connor, N. O., 1978 ; Gordan, S. K. & Hallauer, D.S., 1976 ; 신귀연, 1995 ; 이미정, 1996 ; 김혜경, 1997 ; 김윤정, 정선아, 2001 ; 박경란, 이영숙, 2002).

한편 이선자(1989)는 아동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조부모의 생존여부, 조부모와의 동거여부, 조부모의 건강상태, 경제능력 등을 보고하고 있으며, 김혜경(1977)도 조부모와의 질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부모의 건강과 연령을 들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노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아동이나 청소년 등의 자신에 관계되는 특성변인, 가정에 관련되는 변인, 노인에 관련되는 여러 변인들에 따라 그 결과는 동일하지 않지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6학년 아동 264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이들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2곳에서 표집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와 부모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이다.

1)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측정 도구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

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정미실, 1996 ; 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질문지는 노
이미정, 1996 등)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연구목 인에 대한 이미지 4문항, 노인의 신체특성 4문항,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항목	N(%)
아동성별	남	130 (49.2)
	여	134 (50.8)
아동연령	2학년	82 (31.1)
	4학년	93 (35.2)
	6학년	89 (33.7)
출생순위	독자	81 (30.7)
	첫째	92 (34.8)
	둘째 이상	91 (34.5)
아버지 학력	전문대졸 이상	110 (41.7)
	고졸	113 (42.8)
	중졸이하	41 (15.5)
어머니 학력	전문대졸 이상	76 (28.8)
	고졸	136 (51.5)
	중졸이하	52 (19.7)
월수입	150만원 미만	62 (23.5)
	150만원 ~ 250만원 미만	132 (50.0)
	250만원 이상	70 (26.5)
종교	불교	89 (33.7)
	기독교	82 (31.1)
	천주교	41 (15.5)
	무	41 (15.5)
	기타	11 (4.2)
조부모 생존여부	살아계심	176 (66.7)
	돌아가심	88 (33.3)
조부모 동거여부	동거	82 (46.6)
	비동거	94 (53.4)
조부 연령	65세 미만	58 (34.3)
	65세 ~ 75세 미만	79 (46.7)
	75세 이상	32 (18.9)
조모 연령	65세 미만	49 (28.5)
	65세 ~ 75세 미만	82 (47.7)
	75세 이상	41 (23.8)
조부모 경제력	상	48 (27.3)
	중	62 (35.2)
	하	66 (37.5)
조부모 건강상태	상	23 (13.1)
	중	69 (39.2)
	하	84 (47.7)

노인의 지적 특성 4문항, 노인의 성격특성 5문항, 노인의 대인관계 3문항, 노인의 경제력 4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며 각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가 주어진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alpha=.73$ 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 변인 측정을 위한 질문지

부모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선행연구(정미실, 1996 ; 이미정, 1996 등)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질문지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 노인의 신체특성, 지적 능력, 성격 특성, 노인의 적응 및 대인관계, 가족관계에 대한 36개의 문항이 포함되며,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가 주어진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alpha=.76$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121점 이상은 긍정, 96~120점 이하는 중간, 95점 이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부모용 질문지에는 기타 아동의 성별, 학년, 출생순위, 부모학력, 월수입, 종교, 조부모 생존여부, 조부모 동거여부, 조부모 연령, 경제력, 건강상태 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도구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아동 20명, 어머니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각 도구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질문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0년 6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실시되었다. 아동의 노인 인식 측정도구는 각 아동에게 배부한 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부모용 질문지는 교사를 통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배부한 다음 교사의 협조를 구해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총 300부가 배부되었는데 그 중 미회수된 것, 부적절한 것 등을 제외한 264부가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요 변인의 빈도와 백분율이 산출되었다. 그리고 여러 관련 변인에 따라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의 점수를 t 검정과 F 검정, Duncan 검정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아동의 노인 인식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를 아동관련 변인에 따른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차이, 가정관련변인에 따른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차이, 노인 관련 변인에 따른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차이, 아동의 노인 인식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분석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관련 변인에 따른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차이

아동에 관련되는 변인인 아동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에 따라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관련 변인 중 먼저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 중 성격특성과 대인관계 인식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노인의 성격특성과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모두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 남아가 노인의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표 2> 아동관련 변인에 따른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차이

변인	이미지			신체특성			지적특성			성격특성			대인관계			경제력			
	M	t/F	D	M	t/F	D	M	t/F	D	M	t/F	D	M	t/F	D	M	t/F	D	
성별	남	10.93			11.93			11.98			16.27			7.96			13.01		
	여	10.67	.91		12.07	1.21		12.01	.92		13.73	5.21**		6.04	3.27**		12.99	.84	
연령	2학년	11.93		A	13.86		A	14.12		A	14.92			7.97		A	12.96		
	4학년	10.81	3.26**	B	12.11	2.37*	AB	12.61	4.74**	B	15.03	-.96		7.02	3.96**	B	13.01	1.24	
	6학년	9.66		C	10.03		B	9.27		C	15.04			6.01		C	13.05		
출생 순위	독자	10.77			11.98			12.13			14.93			6.12		C	12.01		C
	첫째	10.82	.61		12.01	.89		11.96	1.16		15.01	.87		7.01	3.34**	B	13.04	3.46**	B
	둘째	10.81			12.02			11.91			15.06			7.88		A	13.96		A

*p<.05 **p<.01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 신체특성, 지적 특성, 대인관계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중 노인에 대한 이미지, 지적특성, 대인관계 인식은 2학년 아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 다음은 4학년 아동, 6학년 아동 순으로 나타나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노인의 신체특성에 대해서는 2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 연령이 어린 아동이 노인의 신체특성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노인의 대인관계와 경제력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나 아들 모두 둘째 아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 다음 첫째 아동, 독자 순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대인관계와 경제력에 대해 둘째 아동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독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동관련 변인인 아동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에 따라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차이

가정에 관련된 변인으로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월수입, 종교, 노인에 대한 부모태도에 따라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에 관련되는 변인 중 먼저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 중 경제력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력이 고졸인 아버지의 아동이 노인의 경제력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그 다음은 중졸이하, 전문대졸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는 대인관계와 경제력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한 차를 나타냈다.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문대졸 이상인 어머니의 아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 다음은 고졸, 중졸 이하 순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이 노인의 대인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경제력에 대한 인식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아동이 전문대졸 이상인 어머니의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더 노인의 경제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서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월수입이 중간 정도인 가정의 아동이 월수입이 많거나, 적은 가정의 아동보다 더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으며,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는 월수입이 많은 가정

<표 3>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차이

변인		이미지			신체특성			지적특성			성격특성			대인관계			경제력		
		M	t/F	D	M	t/F	D	M	t/F	D	M	t/F	D	M	t/F	D	M	t/F	D
부 학 력	중졸이하	10.80			11.99			12.01			14.97			7.03			13.11		B
	고졸	10.81	.62		12.01	.88		11.98	.94		15.01	-.87		7.02	1.21		14.03	5.67**	A
	전문대졸이상	10.79			12.02			12.00			15.02			6.96			11.86		C
모 학 력	중졸이하	10.79			12.03			12.02			14.96			5.65		C	13.96		A
	고졸	10.82	1.01		11.97	.99		11.99	-.71		15.03	1.14		7.14	6.23**	B	13.01	2.41*	AB
	전문대졸이상	10.79			12.00			11.99			15.02			8.21		A	12.03		B
월 수 입	상	10.20		B	11.98			12.00			15.05			7.96		A	13.02		
	중	11.96	3.78**	A	12.01	.81		11.99	.89		14.98	1.39		7.02	4.76**	B	12.97	.63	
	하	10.24		B	12.01			12.01			14.97			6.02		C	13.01		
종교	기독교	10.86		B	12.01			11.99			15.98		A	7.32		A	13.01		
	불교	11.02		A	12.02			11.99			16.11		A	7.21		A	13.00		
	천주교	10.81	5.26**	B	11.98	.87		12.01	-.86		15.86	7.21**	A	7.27	4.27**	A	13.01	.45	
	무	8.71		C	12.01			12.00			12.05		B	6.20		B	12.99		
부모 태도	긍정	11.83		A	12.02			11.98			16.24		A	7.46		A	13.92		A
	중간	10.62	4.21**	B	11.99	.93		12.02	.79		15.36	8.16**	B	7.40	4.31**	A	13.97	4.26**	A
	부정	9.95		C	11.93			11.99			13.40		C	6.14		B	11.11		B

*p<.05 **p<.01

의 아동이 노인의 대인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가정의 종교에 따라서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 성격특성, 대인관계 인식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이중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불교인 가정의 아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 다음은 기독교와 천주교, 무교 순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과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집단의 아동이 종교가 없는 가정의 아동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 종교가 있는 가정의 아동이 종교가 없는 가정의 아동보다 노인의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다.

노인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따라서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 성격특성, 대인관계, 경제력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부모가 긍정적 태도를 가진 아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 다음은 중간, 부

정적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성격특성도 부모가 긍정적 태도를 가진 아동이 더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고, 노인의 대인관계와 경제력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모가 긍정적이거나 중간 정도의 태도를 가진 집단의 아동이 부모가 부정적 태도를 가진 아동보다 더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즉, 부모가 노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아동도 노인에 대한 이미지나, 성격특성, 대인관계, 경제력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가정에 관련되는 변인인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월수입, 종교, 부모의 태도에 따라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노인관련 변인에 따른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차이

노인에 관련되는 변인으로 조부모 생존여부,

조부모 동거여부, 조부모 연령, 경제력, 건강상태에 따라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에 관련되는 변인 중 먼저 조부모 생존여부에 따라서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 조부모가 돌아가신 아동들이 조부모가 살아계신 아동보다 더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노인의 대인관계와 경제력에 대한 인식에서 차가 나타나 노인과 비동거하는 아동이 노인의 대인관계와 경제력 모두에서 더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조부의 연령에 따라서는 노인의 신체특성, 성격특성, 경제력에 대한 인식에 차가 나타나 신체특성과 성격특성은 조부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집단의 아동이 75세 이상인 집단의 아동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 다음은 65세~75세 미

만인 집단, 75세 이상인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부가 더 젊을수록 아동이 노인의 특성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조모의 연령에 따라서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 신체특성, 성격특성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성격특성은 65세 미만인 집단의 아동이 75세 이상 집단의 아동보다 더 긍정적으로 노인의 특성을 인식했으며, 노인의 신체특성에 대해서는 세집단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 조모가 더 젊을수록 아동이 노인의 신체특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노인의 경제력에 따라서는 아동의 노인 경제력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 실제로 노인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아동들이 노인의 경제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 신체 특성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 노인의

<표 4> 노인관련 변인에 따른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차이

변인		이미지			신체특성			지적특성			성격특성			대인관계			경제력		
		M	t/F	D	M	t/F	D	M	t/F	D	M	t/F	D	M	t/F	D	M	t/F	D
조부모 생존여부	살아계심	9.91			11.99			12.10			14.69			7.04			12.92		
	돌아가심	11.69	4.21**		12.01	.76		11.90	1.27		15.31	1.31		6.96	.97		13.08	.96	
조부모 동거여부	동거	10.78			12.061			11.97			15.04			6.06			11.98		
	비동거	10.82	1.11		1.94	1.04		12.03	.96		14.96	.99		7.94	3.31**		14.02	4.96**	
조부 연령	65세 미만	10.82			13.87		A	12.02			16.14		A	7.08			14.32		A
	65세~75세 미만	10.81	.61		12.10	2.86*	AB	12.00	.87		15.01	2.97*	AB	7.01	1.26		13.02	3.74**	B
	75세 이상	10.77			10.03		B	11.98			13.85		B	6.91			11.66		C
조모 연령	65세 미만	11.21		A	14.04		A	11.99			16.16		A	7.02			13.14		
	65세~75세 미만	10.83	3.62**	AB	12.21	7.87**	B	12.01	.62		14.98	2.94*	AB	7.00	.74		12.94	1.31	
	75세 이상	10.36		B	9.75		C	12.00			13.86		B	6.98			12.93		
경제력	상	10.78			12.04			11.92			15.02			6.85			14.02		A
	중	10.81	.36		11.97	.47		11.98	1.11		15.01	.72		7.04	1.04		13.11	3.96*	B
	하	10.81			12.01			12.10			14.97			7.11			11.87		C
건강상태	상	12.27		A	13.96		A	12.01			15.00			6.99			13.02		
	중	10.89	4.96**	B	12.02	3.12*	AB	12.08			15.01	.36		6.99	.47		13.02	.51	
	하	9.24		C	10.02		B	11.97	.86		14.99			7.00			12.96		

*p<.05 **p<.01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아동들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신체특성 인식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의 아동이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의 아동보다 신체특성 인식에서 더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노인에 관련되는 여러 변인에 따라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아동의 노인 인식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분석

아동의 노인 인식에 대한 아동, 가정, 노인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보면 먼저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부모의 태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그 다음은 가정의 종교, 월수입, 아동연령, 노인 건강상태, 조부 연령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신체특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모태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은 아동 연령, 노인 연령, 조부 연령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지적 특성에 대한 인식에는 아동 연령만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변인들은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노인의 성격 특성에는 가정의 월수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은 가정의 종교, 아동성별, 아동 출생순위와 조모 연령, 조부 연령, 부모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노인의 대인 관계에 대한 인식에는 아동성별, 부모 태도, 종교, 월수입, 아동의 연령과 어머니 학력, 아동 출생순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노인의 경제력에 대한 인식에는 부모 태도,

<표 5> 아동의 노인 인식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분석

변인	이미지		신체특성		지적 특성		성격특성		대인관계		경제력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아동성별	.14	.05	.11	.07	.11	-.02	.21	.15**	.36	.20**	.19	.05
연령	.39	.17**	.36	.16**	.46	.21**	.25	.09	.34	.14**	.21	.06
출생순위	.21	.06	.04	.03	.30	.10	.27	.14**	.23	.12**	.33	.04
아버지학력	.11	.03	.04	.02	.21	.07	.22	.03	.11	.07	.27	.14**
어머니학력	.21	.05	.17	.11	.19	.05	.14	.04	.27	.14**	.23	.15**
월수입	.47	.21**	.11	.03	.11	-.04	.36	.17**	.32	.16**	.43	.19**
종교	.38	.23**	.14	.06	.07	.08	.34	.16**	.26	.17**	.14	.05
부모태도	.32	.25**	.31	.17**	-.06	.02	.33	.12**	.09	.19**	.49	.25**
조부모생존여부	.30	.11*	.21	.06	.04	.01	.06	.05	.11	.04	.21	.06
조부모동거여부	.17	.09	.01	.08	.21	.04	.11	.07	.21	.11*	.31	.12**
조부연령	.04	.06	.32	.12**	.19	.05	.21	.13**	.13	.09	.17	.11*
조모연령	.23	.12**	.34	.11*	.11	.06	.23	.14**	.07	.08	.23	.04
경제력	.06	.04	.03	.02	.11	.06	.31	.09	.02	-.03	.32	.16**
건강상태	.27	.14**	.27	.14**	.02	.03	.16	.07	.14	.04	.11	.04
상수	3.21		2.86		.07		3.27		3.14		2.96	
R ²	.24		.21		.09		.38		.34		.27	
F	14.92**		13.83**		2.43		21.25**		19.38**		17.36**	

*p<.05 **p<.01

가정의 월수입, 노인 경제력,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력, 조부모 동거여부, 조부 연령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관련변인인 아동에 관련되는 변인, 가정에 관련되는 변인, 노인에 관련되는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인식에 특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관련 변인 중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가정 관련 변인 중에서는 부모태도, 월수입과 종교가, 노인 관련 변인 중에서는 조부와 조모 연령이 노인에 대한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즉, 아동은 연령에 따라, 그리고 노인에 대한 부모의 태도, 월수입과 종교에 따라, 또한 조부, 조모의 연령에 따라 노인을 다르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관련 변인들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예언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24%, 신체 특성에는 21%, 성격 특성에 대한 인식에는 38%, 대인 관계에 대한 인식에는 34%, 경제력에는 27%의 예언량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노인의 지적 특성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있는 예언량을 나타내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 아동 및 가정 관련 변인에 따라, 그리고 노인 관련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보고, 아동의 노인 인식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64명의 초등학교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본 연구의 결과 아동 관련 변인 중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노인의 성격 특성과 대인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긍정적인 인

식을 나타냈으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 신체 특성, 지적 특성, 대인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 대체로 연령이 어린 아동이 더 긍정적으로 노인의 특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노인의 대인 관계와 경제력에 대한 인식에서 둘째 아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 다음은 첫째 아동, 독자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관련 변인 중 연령에 따른 차이는 이선자(1989), 신귀연(1995), 이미정(1996) 연구 등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인식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선행 연구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 차용은(1980), 조명희(1974), 신귀연(1995)의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선행연구(임인혜, 1987; 김혜경, 1997)에서 외동이나 만이가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는데 본 연구에서는 둘째 아동이 첫째나 독자보다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으므로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정에 관련되는 변인 중 먼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고졸인 아버지의 아동이 노인의 경제력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노인의 대인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노인의 경제력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서는 월수입이 중간 정도인 가정의 아동이 월수입이 많거나 적은 가정의 아동보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월수입이 많은 가정의 아동이 노인의 대인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종교에 따라서는 종교가 없는 가정의 아동보다 종교가 있는 가정의 아동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 성격 특성, 대인 관계 인식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노인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따라서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 성격 특성, 대인 관계, 경제력에 대한 인식에서 차가 나타나, 부모

가 노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아동도 노인에 대한 이미지나 성격 특성, 경제력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가정에 관련되는 변인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같은 변인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그 구체적인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부모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의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윤성혜, 1990; 김혜경, 1997; 박의순, 1990)들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인에 관련되는 변인 중 조부모 생존 여부에 따라서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서 조부모가 돌아가신 아동이 살아계신 아동보다 더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고, 조부모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노인과 비동거하는 아동이 대인 관계와 경제력에 대한 인식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선행 연구에서는 노인과의 동거여부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노인과 비동거하는 아동이 노인의 대인 관계와 경제력에 대한 인식에서 더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이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따로 사는 노인의 경우 더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므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조부의 연령에 따라서는 조부의 연령이 더 적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고, 조모의 연령에 따라서는 역시 조모의 연령이 적을수록 더 긍정적인 지각을 나타냈다. 노인의 경제력에 따라서는 실제 노인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아동들이 노인의 경제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고,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 신체 특성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했다.

아동의 노인 인식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보면 아동 관련 변인 중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가정 관련 변인 중에서는 부모의 태도, 월수입과 종교가, 노인 관련 변인 중에서는 조부와 조모의 연령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

타났다. 즉,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가정에서의 부모의 태도나 월수입, 종교에 따라, 그리고 조부와 조모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노인 인식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아동에 관련된 변인, 가정에 관련되는 변인, 노인에 관련되는 여러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이들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일부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으로 일반화시키는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가 표준화된 도구가 아니므로 도구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관련변인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아동의 긍정적 노인 인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개발이나, 다양한 활동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즉, 노인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분화된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고, 다양한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지역간의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 2, 4, 6학년 뿐만 아니라 더 어린 유아, 중, 고등학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연령에 따른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가정에서나 교육기관, 사회기관 등에서 바람직한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동이 노인과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긍정적 인식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강주령(1990). 노년기 적응에 관한 연구 ;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광숙(1987). 청소년의 노인관에 대한 조사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윤정, 정선아(2001).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간의 관계 규명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173~183.
- 김태현(1982).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경(199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차이에 관한 연구 : 미국 이민 가족내의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간의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65~79.
- 김효정(1995).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및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란, 이영숙(2001). 청소년과 중년이 갖고 있는 노인의 고정관념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221~239.
- 박경란, 이영숙(2002).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중가가 대학생의 노인 지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37~51.
- 배경미(1988). 조부모 역할에 관한 기초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동인(1989).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 손자녀와의 접촉과 조모의 역할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45~60.
- 서병숙(1991). 노인 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귀연(1996).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노인 이미지.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성혜(1990). 청년, 중년, 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정(1996).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자(1989). 연령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인혜(1987). 한국 청소년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장순(1979). 노인에 대한 중학생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실(1996). 아동, 부모, 조부모 특성에 따른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숙(1990). 노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명희(1974). 노인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의 태도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용은(1980).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연구. 전주대학논문집, 제9호, 239~262.
- 통계청(2000). 한국의 인구현황.
- Bee, H. & Mitchell, W.(1980). *The Developing Person : A Life-Span Approach*. SanFrancisco, Harper & Row.
- Bergtson, V.L. & Kuypers, I. A.(1973). Generational difference and the developmental stake.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 249~260.
- Gordon, S. K. & Hallauer, D. S.(1976). The impact of a friendly visiting program on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toward the aged. *The Gerontologist*, 16(4), 371~376.
- Lonkoff, S.E. & Cleary, P.D. & Wetle, J.(1987). Differences in the appraisal of health

- between aged and middle-aged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2(1), 114~120.
- Mead, M.(1972). *Blackberry winter ; My Earlier Years*. N.Y.:Morrow.
- Porter, K. & O'connor, N. O.(1978). Changing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to old people. *Educational Gerontology*, 3, 139~148.
- Rosencranz, H. & McNevin, T.(1969). A factor analysis of attitudes toward the aged. *The Gerontologist*, 9, 55~59.
- Ross, R. F. & Freitag, C.(1976). A comparison of adolescent and adult attitudes toward the aged. *Educational Gerontology*, 1(3), 291~295.
- Seefeldt, C. R., Jantz, R. K., Galpur, A. & Serock, K.(1977). Children'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 educational implications. *Educational Gerontology*, 2, 301~310.
- Tuckman, J. & Lorge, I.(1958). Attitude toward aging of individuals with experiences with the aged. *J. of Genetic Psychology*, 92, 199~204.
- Weinberger, L. E. & Millham, J.(1975). A multi-dimensional, multiple method analysis of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 of Gerontology*, 30(3), 343~348.